

고흥군, 해양쓰레기 '상시 대응'... 어민·바다 지킨다

항해 장애·어선 충돌 위험 증가
도서·연안 상시 대응체계 구축
다목적 정화 '청정고흥호' 활용
"주말·휴일에도 작업 이어갈 것"

전라남도 고흥군이 도서 및 연안 해역에 광범위하게 유입되고 있는 해양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3일 고흥군은 해양쓰레기로 인한 어업 피해와 환경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도서 및 연안 해역에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주말에도 멈추지 않는 수거 활동을 이

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해양쓰레기는 조류와 풍랑에 따라 어장·항로·해안가 등 광범위 해역에 유입된다.

특히 김 양식장 등 어업시설 철거 이후 발생하는 시설 잔재물은 해상 부유 쓰레기로 전환돼 항해 장애나 어선 충돌 등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도서 지역의 경우 수거 인력과 장비 접근이 어려워 정비가 지연되기 쉬운 만큼 더욱 적극적인 현장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고흥군은 다목적 정화선 '청정고흥호'를 중심으로, 유실 어구, 부유 쓰레

기, 도서 적치 쓰레기 등을 지형과 시기에 따라 구분해 맞춤형으로 대응하고 있다.

'청정고흥호'는 수심이 얕고 접안이 어려운 해역까지 진입할 수 있어, 도서·연안의 수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고흥군은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어선 항로, 양식장 주변, 도서 해안 등 지역 특성에 맞춰 연중 수거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주말과 휴일에도 작업을 이어가 사고 예방과 해양환경 보전에 힘쓰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해양쓰레기 수거는

단순한 환경정비가 아니라, 어민의 생업을 보호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현장 중심의 행정"이라며 "앞으로도 고흥 바다가 더 깨끗하고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대응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지난 2월 도양읍 시산도~나로도 해역에서 김 양식 종료 후 발생한 부유 쓰레기를 집중 수거해 항로 안전 확보에 기여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에도 시산도 해안 일원에 장기간 방치된 해양쓰레기 약 100톤을 중장비를 동원해 처리하며 도서민의 숙원 해결에 나섰다.

고흥=심정우 기자

광양시, 코로나19 재유행 감염예방수칙 준수 당부

전라남도 광양시가 최근 인접 국가인 홍콩과 태국 등에서 코로나19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전파 예방을 위해 시민들에게 일상 속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고위험군은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3일 광양시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23일 2025년 제20주차(5월11일~17일) 국내 병원급 표본감시기관 221개소에서 보고된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를 발표했다. 해당 주 환자 수는 100명으로, 직전 주 146명 대비 다소 감소했으나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여전히 지역사회 내 확산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에 광양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올바른 손씻기 생활화 △기침 예절 실천 △사람 많은 곳에서의 마스크 착용 △실내 자주 환기하기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을 찾아 적절한 진료를 받을 것 등을 시민들에게 강조했다.

또 코로나19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을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이 6월 말까지 연장 시행되고 있는 만큼 아직 접종하지 않은 대상자들은 늦지 않게 접종에 참여해줄 것을 권고했다.

대상자는 백신 재고 상황에 따라 예방접종이 가능한 위탁의료기관이 변경될 수 있어 반드시 사전 전화 확인 후 방문해야 한다.

기준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경우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면역력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의료진과 상담 후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다. 광양=안영준 기자

여수시, '마이스 산업' 전문 인력 양성 나선다 맞춤형 교육·테마별 상품기획

전라남도 여수시가 국제회의도시로서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전라남도관광재단, 전남대학교와 함께 마이스(MICE) 산업을 이끌어갈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선다.

3일 여수시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오는 12월까지 한국마이스협회 주관 온라인 마이스(MICE) 연수원(14차) 기본교육, 찾아가는 마이스(MICE) 맞춤형 교육, 외국어 명예 통역관 양성, 마이스(MICE) 단체를 위한 테마별 상품기획 및 코스 개발, 시민·공무원 대상 특강 등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한다.

참여자들에게는 국내에서 개최되는 마이스 박람회를 참관하고, 여수시가 주최하는 마이스(MICE) 행사에서 운영요원으로 활동하는 등 실습 기회도 주어진다.

교육은 오는 9일부터 진행되며, 서포터즈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여수시 마이스산업 누리집(www.yeosu.go.kr/mice)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여수=이경기 기자

장흥군, '의료급여 특화사업' 독거노인 안부살피기 추진

전라남도 장흥군이 지역 내 돌봄 서비스를 받지 않고, 70세 이상 혼자 살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역 주도형 의료급여 특화사업을 실시한다.

3일 장흥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독거노인의 약물복용 여부 확인 및 건강검진 독려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들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고, 대상자의 건강관리 능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획됐다.

의료급여 관리사는 대상자의 건강상태, 식사여부 등 안부를 확인하고 올바른 약물 복용 등 복약 지도로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을 모색한다. 이를 위한 정기적인 안부확인(전화, 방문 등)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장흥군 관계자는 "독거노인 안부살피기 사업을 통해 민관이 함께하는 맞춤형 의료급여사업을 추진하고, 독거노인들의 고립 예방 및 지역사회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안전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통합돌봄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장흥=김전환 기자



광양제철소 임직원들이 글로벌 볼런티어 워크를 맞아 어르신들께 선물할 빵을 만들고 있다.

광양제철소 제공

광양제철소 '2025 글로벌 볼런티어 워크' 성료

포스코그룹 대표 봉사 축제
6987명 참여, 300곳서 봉사

포스코광양제철소는 지난달 22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 '2025 글로벌 볼런티어 워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3일 밝혔다.

'글로벌 볼런티어 워크'는 2010년부터 매년 열리는 포스코그룹 대표 상생 나눔 활동으로, 광양제철소는 물론 국내외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나눔활동을 실천해 오고 있다.

올해로 16년차를 맞이한 2025 글로벌 볼런티어 워크에서는 총 30개 국가, 약 2만여명의 임직원들이 '희망을 나눔으로

있다'라는 슬로건 아래 약 800건 이상의 봉사활동이 진행됐다.

광양제철소에서는 재능봉사단, 부·공장, 일반 봉사단 등 약 6987여명의 임직원들과 2834명의 협력사 임직원이 봉사활동에 함께했으며, 봉사자들은 약 300개가 넘는 장소에서 계층별, 영역별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며 살기 좋은 지역사회 만들기에 나섰다.

광양시 옥룡면에서 진행된 연합봉사활동을 시작으로, 광양제철소 직원들은 중산마을, 아동마을, 다압마을 등 자매결연을 맺은 자매마을에서 환경정화, 시설점검, 방충망 설치, 담장 도색, 일손 돕기 등의 봉사를 펼치며 이웃들의 생활환경 개

선에 앞장섰다.

특히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어르신 대상 봉사활동을 마련하고 제과 제빵 나눔, 민속놀이 문화봉사, 경로당 청소·설비보수 등 다채로운 봉사활동을 펼쳤다.

고재운 광양제철소장은 "광양제철소와 협력사 임직원분들을 합쳐 약 9800명 이상의 봉사자들이 이번 글로벌 볼런티어 워크에 참여해 이웃들에게 사랑의 전했다"며 "앞으로도 우리의 이웃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보성군, 고혈압·당뇨 질환자 대상 합병증 검사 지원

내달 4일까지 협약 의료기관 연계

전라남도 보성군은 오는 7월4일까지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합병증 정밀검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합병증을 조기에 발견해 중증 질환으로의 진행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검사 대상은 만 30세 이상 보성군 고혈압·당뇨병 등록자 중 심뇌혈관질환, 안과 질환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

군 58명이다.

군은 의료취약계층을 우선 선정해 연 1회, 최대 5만원의 합병증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협약 의료기관을 통해 당화혈색소, 콜레스테롤, 미세 단백뇨, 경동맥 초음파, 안압 등 주요 검사를 실시한다. 고혈압 환자에게는 심전도 검사, 당뇨병 환자에게는 신경 검사가 추가로 실시된다.

관내 협약 의료기관은 총 4개소로, 보성아산병원, 삼호병원, 보성밝은안과의원, 별교순천안과의원이다.

검사 대상자는 보건소에서 발급한 통

지서를 지참해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검사 기간 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비는 보성군 보건소가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한다.

김학성 보성군 보건소장은 "고혈압·당뇨병은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심근경색, 뇌졸중, 만성신부전, 실명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고위험군 환자들의 건강 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지역사회 전체의 만성질환 관리 역량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보성=양중수 기자

고흥군,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특별수당·처우개선비 등 지원

전라남도 고흥군은 2025년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에 대해 전담인력의 업무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해 자체 예산을 편성해 특별수당 및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2025년 고흥군 노인일자리 사업에는 총 4949명의 어르신이 참여 중이며 이는 민선 8기 출범 전인 2022년 대비 2009명이 증가한 수치다.

이와 같은 사업 규모 확대에 따라 전담인력의 대상자 안전관리, 사업단 운영, 행정업무 등의 부담도 함께 증가한 상황이다.

이에 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담인력 1인당 월 5만원의 특별수당과 연간 30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 총 2970만원의 군비를 자체 편성했다.

이번 조치로 고흥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고흥군지부, 고흥군노인복지관 등 3개 수행기관 소속 전담인력 총 33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어르신들과 직접 소통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인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처우 개선이 전담인력의 사기를 높이고, 더 나은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흥=심정우 기자